



영유아교육기관의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의정토론회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CONTENTS

영유아교육기관의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의정토론회

주제발표

- ☞ **부모교육** 07
이만수 선임연구원(영유아교육연구소 더자람)(前 한국영상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지정토론

- ☞ **<부모교육>에 대한 토론** 23
김규수 명예교수(원광대학교 유아교육과)
- ☞ **영유아교육기관의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31
이미정 팀장(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 유보통합추진TF팀)
- ☞ **영유아기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소고** 39
이혜경 팀장(충청남도교육청 교육혁신과 행복교육팀)

주제발표

부모교육

이 만 수 선임연구원
(영유아교육연구소 더자람)
(前 한국영상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부모교육

이만수
전) 한국영상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현) 영유아교육연구소 더자람 선임연구원

목차



- 부모교육이란
- 부모교육 필요성
- 현대사회와 부모교육
- 부모교육 프로그램
- 시사점



부모교육이란



목적 및 정의

단순히 부모가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정보 나누기, 신념과 통찰력의 변화, 기술 습득, 문제 해결 등을 포함하는 것



부모교육



역사

(초기의 부모교육)

의도적으로 계획된 활동을 통해 부모에게 지식과 정보 그리고 기술을 알려주는 것. 즉, 전문가들로부터 교육을 받는 교사와 학습자로서의 특성을 강조

(1960년대 이후)

교사와 부모의 입장을 동등하게 인식하여 부모를 교육활동의 참여자로서 쌍방적인 관점으로 변화

(1956 미국)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보상교육 프로그램으로 시작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의 실시. 프로그램의 평가결과 유아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의 참여가 절실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고, 그 이후로 부모교육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최근)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증진시켜 사고, 감정, 행동에서 습관적인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을 스스로 습득하고 연구하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말한다



부모교육

필요성

1. 모가 되는 과정에도 준비가 필요하다.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만큼의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한 채 부모가 되는 경우 출산 이후 부모역할이 낯설 뿐 아니라 혼란을 겪기도 한다.
2. 부모는 자녀의 양육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부모가 어떤 환경을 제공하며, 어떤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느냐는 성장,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3. 모의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는 것은 바른 양육태도와 올바른 정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영량을 길러줌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자녀양육에 중요한 것 중 한 가지가 일관된 양육을 하는 것이다.
5. 부모는 부모교육을 통해 미래사회 또는 미래를 살아갈 자녀에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혀 자녀교육을 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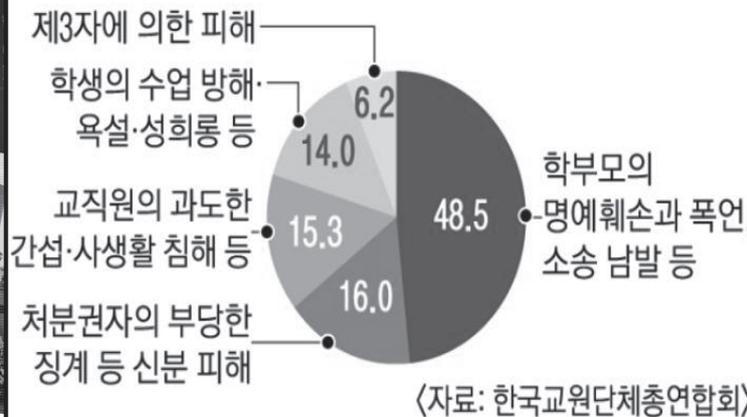
부모교육

현대사회와 부모교육

대사회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관심과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하지만 높은 교육열 만큼 교육에 대한 이해는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 양극화 특성을 나타내는 사건들이 대두되고 있다.



유형별 교권 침해 상담 현황 (단위: %)



부모교육

현대사회와 부모교육

- 효율적인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양육의 기술을 상황에 따라 응용하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올바른 부모로서의 역량을 길러주어야 한다.
- 부모교육을 통해 단순한 지식과 정보를 익히는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적용하고 연구할 수 있는 수행능력이 수반되도록 지원해주며,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의 프로그램이 개발·보급되어야 한다.
- 바쁜 현대사회의 어려움 속에서 인터넷 확대, 스마트폰 및 모바일 기기의 보급화로 인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 교육을 접할 수 있게 되어 시공간의 구분 없이 교수자와 학습자들의 만남이 가능하게 되어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호라용하여 보다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무부모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부모교육 프로그램

영역	교육내용	일반교육	공동부모교육	
부모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됨의 의미, * 부모발달 단계 및 특징 * 자녀관 계 등 가치관교육 * 부모의 법적 의무와 사회적 책임 * 부모의 자기이해 * 부모의 자아존중감 및 양육 효능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심리적 건강 * 양육신념과 양육태도 * 애착의개념과 중요성 * 부모-자녀관계의 특성 * 부모교육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 유아의성장 .양육방법 영. 유아발달이해부모교육(아이강점. 키움 가족놀이) 부모양육태도점검(자녀 놀이에 어떻게 참여하시나요?) *영.유아의 인권보호 및 아동학대예방 1.자녀권리존중부모(존경받는아이 함께크는부모)2. 아동학대예방부모 아동학대0% 가족행복100%) 	
자녀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 유아기 기질 * 영. 유아기 뇌발달 * 영. 유아 도덕성 발달 * 영. 유아기 사회성 발달 * 영. 유아기 신체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 유아기정서발달 * 영. 유아기 심리, 성격발달 * 영. 유아기 언어발달 * 영. 유아기인지발달 * 또래관계의 중요성 이해 * 영. 유아기 영양, 건강,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량강화교육 질높은 강의에 대하여 현대사회의 이슈나 부모들의요구를 반영하여 전문강사를 통한 부모교육 *부모행복 프로젝트 영.유아 부모가 행복과 놀이에 가치를 이해하고 자녀의 핵심역량과 감정을 찾아봄으로써 양육에 어려움을 해소하고 부모-자녀간 긍정적 유대감 형성의 기회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자역할 가정내 양육환경점검 제4차 어린이집 보육과정 이해하고 존경받는 우리아이 양육환경 포괄적인 양육정보안내 *가족의 건강, 영양, 안전 양육스트레스 관리부모교육
가족과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형태에 따른 부모의 역할 * 다양한 가족 이해하기 * 가족갈등, 스트레스 및 해소 * 부모와 교육, 보육 기관의 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정보, 사회적 자원 활용 * 아동학대 및 아동권리 * 아버지의 양육참여 * 직장과 부모 역할 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육정보, 사회적 자원 활용 * 아동학대 및 아동권리 * 아버지의 양육참여 * 직장과 부모 역할 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의 건강, 영양, 안전 양육스트레스 관리부모교육 스트레스 요인에 따라 4가지 모듈의 워크숍에 참여 1.정체성스트레스 2. 완벽한 부모스트레스 3. 현실육아스트레스4.관계갈등스트레스
양육과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생활습관지도 * 자녀훈육기술 * 놀이의 이해(이론, 의미, 종류, 방법) * 자녀 성교육 * 언어지도 * 창의성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성지도 * 자신감 및 주도성지도 * 문제행동 및 부적응 행동 * 부모-자녀 간 대화 및 의사소통 방법 * 부모-자녀 관계문제 및 치료 * 양육스트레스안 대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성지도 * 자신감 및 주도성지도 * 문제행동 및 부적응 행동 * 부모-자녀 간 대화 및 의사소통 방법 * 부모-자녀 관계문제 및 치료 * 양육스트레스안 대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의 건강, 영양, 안전 양육스트레스 관리부모교육 스트레스 요인에 따라 4가지 모듈의 워크숍에 참여 1.정체성스트레스 2. 완벽한 부모스트레스 3. 현실육아스트레스4.관계갈등스트레스



부모교육 프로그램



(그림 2) 영·유아부모교육 운영모형 구성요소



시사점

1. 다양한 가족 구성원과 가족의 형태가 다르다. 따라서 주양육자 또는 양육의 시간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녀 양육과 밀접한 주 양육자를 고려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2. 본교육과 선택교육으로 운영해야한다.양육에 대한 지식 및 필요에 따라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을 나누어 운영하면 더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부모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3. 다양한 강사진 활용. 아동관련 전문가, 문제행동 관련 전문가, 아동 성범죄 전문가 등의 각 분야별로 다양한 강사진을 구성해야 한다.
4. 온라인 교육의 다양화. 상황에 따라 부모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는 기관에서는 온라인 교육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시사점

5. 단기의 일회성 교육이 아닌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급연령에 따라 다르게 운영하거나 학기초부터 학기 말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6. 부모교육의 교수방법 개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교육은 단순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 가치관의 형성을 포함 한다.
7. 문제 고민을 해소하고 해결할 수 있는 상담관련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
8. 부모교육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모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부모교육

이만수

전) 한국영상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현)영유아교육연구소더자람 선임연구원

1. 부모교육이란

부모교육이란 부모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효과적인 변화를 위한 모든 종류의 기술 또는 작용을 의미한다. 부모교육은 시대에 따라 개념이 다소 변화 하였으며, 최근에는 부모의 교육활동의 참여가 효율적인 교육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정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교육의 목적은 단순히 부모가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정보 나누기, 신념과 통찰력의 변화, 기술 습득, 문제 해결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부모교육은 아동과 부모 모두에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더불어 이들의 주변 환경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

초기의 부모교육은 의도적으로 계획된 활동을 통해 부모에게 지식과 정보 그리고 기술을 알려주는 것이었다(Fine, 1980). 따라서 초창기의 부모교육은 전문가들로부터 교육을 받는 교사와 학습자로서의 특성을 강조 했다면, 1960년대 이후에는 교사와 부모의 입장을 동등하게 인식하여 부모를 교육활동의 참여자로서 쌍방적인 관점으로 변화하였다.뱅크스트리트 대학의 Biber도 “부모의 참여없이 유아만을 교육한다는 것은 실조와 좌절을 부를 뿐이다”고 하여 유아교육에 부모참여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이원영, 1983, 재인용).

부모교육은 19세기 이전부터 코메니우스, 루소, 페스탈로찌, 프뢰벨에 의하여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왔으나(이원영, 1985) 부모교육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것은 미국에서 1965년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보상교육 프로그램으로 시작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의 실시에서부터였다. 이 프로그램의 평가결과 유아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의 참여가 절실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고, 그 이후로 부모교육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최근 부모교육의 개념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증진시켜 사고, 감정, 행동에서 습관적인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을 스스로 습득하고 연구하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말한다(이재연,

김경희, 1989).

2. 부모교육 필요성

현대사회는 빠르게 변화하면서 사회 구조와 함께 가족의 구성원 즉 가족의 구조에도 변화를 주었다. 가족이 해체되어 새로운 형태의 가족 구성이 생겨나면서 단순했던 가족구조가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급격한 사회변화와 다원형 현상으로 부모로서의 역할과 부모의 양육지식은 개개인이 처한 환경과 생활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사회적 변화, 경제적 변화, 가족역할 변화는 톱니바퀴와 같이 맞물려 있다. 변화하는 현대 사회의 특성과 부모교육의 필요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가 되는 과정에도 준비가 필요하다.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만큼의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한 채 부모가 되는 경우 출산 이후 부모역할이 낯설 뿐 아니라 혼란을 격기도 한다. 조금 더 안정적인 상태에서 자녀를 올바른 방향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부모는 자녀의 양육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부모가 어떤 환경을 제공하며, 어떤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느냐는 성장,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부모가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 자녀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거나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하고 때론 자녀의 능력이 발휘하지 못하게 되기도 한다. 신체발달과 같은 외적인 발달과 인지발달, 성격발달과 같은 내적인 발달 모두에 밀접하게 관련을 이루며, 이는 추후 자존감, 긍정적인 태도, 인성 등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셋째, 부모 역할에 대한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 부모교육은 필요하다. 현대사회의 부모들은 양육에 대한 정보가 매우 다양하며,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정보들이 오히려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을 방해하여 자녀에 대한 올바른 양육에 장애를 일으키기도 한다. 즉 부모의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는 것은 바른 양육태도와 올바른 정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줌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일관성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함이다. 자녀양육에 중요한 것 중 한 가지가 일관된 양육을 하는 것이다. 이는 자녀로 하여금 습관 또는 태도를 형성하는 과정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양육은 전부 부모의 몫이 아니다. 양육은 부모와 교육기관이 함께 상호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자녀의 올바른 성장·발달을 이룰 수 있다. 즉, 교육기관과 가정의 교육이 차별화되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교육은 극대화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이러한 가정과

기관의 연계를 위해서는 교육기관의 프로그램 또는 교수방법 등을 부모에게 전달하고 상호협력을 이루어 일관성 있는 교육을 실현할 때 가능하다.

다섯째, 현재와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사회역시 디지털의 활성화로 매우 다양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사회를 예측한다. 이처럼 현재의 현상에 안주하여 교육하는 것은 미래사회에 부적응을 야기 시킬 수 있다, 따라서 부모는 부모교육을 통해 미래사회 또는 미래를 살아갈 자녀에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혀 자녀교육을 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이는 교육의 흐름이 부모교육에도 반영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부모는 자녀가 미래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을 고민하고 가르쳐야 한다. 미래를 위한 사고방식, 기술능력, 가치, 태도 등을 배울 수 있도록 양육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부모교육을 통해 도움을 주어야 한다. 따라서 미래사회와 연관된 내용의 부모교육이 필요하다(박새롬·노보람·박혜준·이순형, 2017; 정계숙·최은식, 2012).

이와 같이 부모교육은 자녀를 올바른 양육방법 및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모로서 부모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변화 시켜주기 위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적 활동이며, 이러한 부모교육은 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3. 현대사회와 부모교육

부모는 부모교육을 통해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과 기술을 자녀에게 실천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효율적인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양육의 기술을 상황에 따라 응용하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올바른 부모로서의 역량을 길러주어야 한다. 즉, 부모교육을 통해 단순한 지식과 정보를 익히는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적용하고 연구할 수 있는 수행능력이 수반되도록 지원해주며,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의 프로그램이 개발·보급되어야한다(김현주·손은경·신혜영, 2013).

바쁜 현대사회의 어려움은 부모라고 해서 예외는 없다. 하지만 어려움만 있는 것은 아니다. 김병목(2021)은 인터넷 확대, 스마트폰 및 모바일 기기의 보급화로 인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 교육을 접할 수 있게 되어 시공간의 구분 없이 교수자와 학습자들의 만남이 가능하게 되어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는 부모교육에서 교수자 학습자 또는 동등한 양육자로서 서로 소통하고 교육을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 또한 얼마든지 가능한 현실을 뒷받침 한다.

현대사회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관심과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하지만 높은 교육열 만큼 교육에 대한 이해는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 따라서 두 가지 사이에 일어나는 격차는 교육을 실행 하는 교사와의 갈등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양극화 특성을 나타내

는 사건들이 대두되고 있다. 바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이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학부모의 갑질, 교권의 하락 등이 거론되며,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이러한 사회현상 속에 우리는 교육의 목적과 올바른 방향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부모교육이 더욱 강조되어야 함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4. 부모교육 프로그램

부모교육은 시대별로 교육 목적과 운영 방식, 학자의 관점에 따라 각자의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표 1> 영·유아 부모 기본교육 내용

영역	교육내용
부모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됨의 의미, * 부모발달 단계 및 특징 * 자녀관 계 등 가치관교육 * 부모의 법적 의무화 사회적 책임 * 부모의 자기이해 * 부모의 자아존중감 및 양육 효능감
자녀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 유아기 정서발달 * 영. 유아기 심리, 성격발달 * 영. 유아기 언어발달 * 영. 유아기 인지발달 * 또래관계의 중요성 이해 * 영. 유아기 영양, 건강, 안전
가족과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형태에 따른 부모의 역할 * 다양한 가족 이해하기 * 가족갈등, 스트레스 및 해소 * 부모와 교육, 보육 기관의 소통
양육과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정보, 사회적 자원 활용 * 아동학대 및 아동권리 * 아버지의 양육참여 * 직장과 부모 역할 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생활습관지도 * 자녀훈육기술 * 놀이의 이해(이론, 의의, 종류, 방법) * 자녀 성교육 * 언어지도 * 창의성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성지도 * 자신감 및 주도성지도 * 문제행동 및 부적응 행동 * 부모-자녀 간 대화 및 의사소통 방법 * 부모-자녀 관계문제 및 치료 * 양육스트레스와 대처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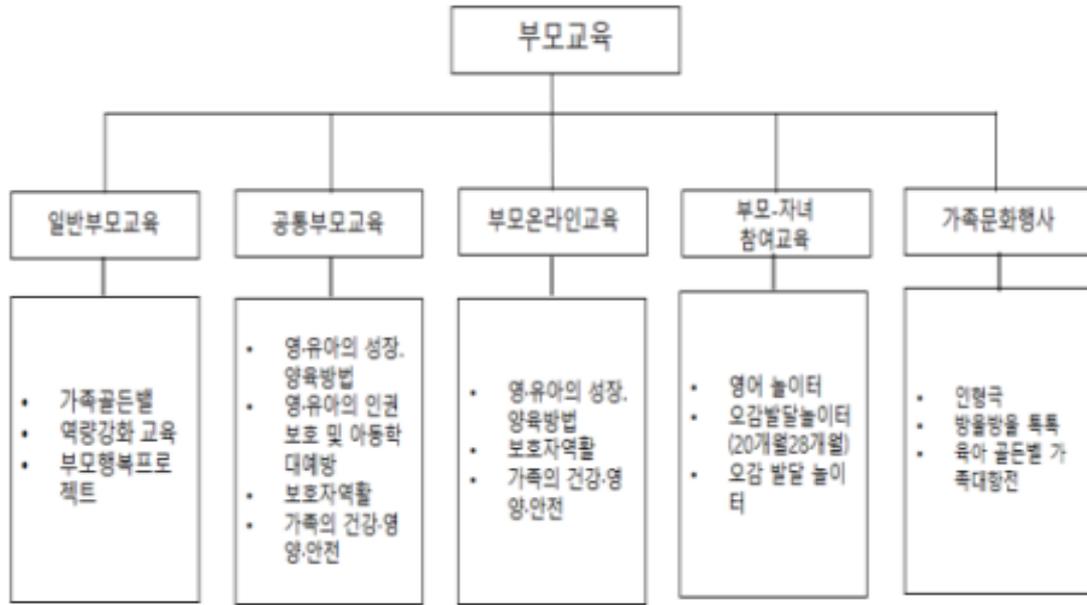
<표 2> 영·유아 부모교육 현황

일반교육	공통부모교육
<p>*가족 골든벨 도전. 육아퀴즈 한마당 가족골든벨을 통해 육아상식 및 관련정보를 퀴즈형식으로 재미있게 풀어봄</p> <p>*역량강화교육 질높은 강의에 대하여 현대사회의 이슈나 부모들의요구를 반영하여 전문강사를 통한 부모교육</p> <p>*부모행복 프로젝트 영,유아 부모가 행복과 놀이에 가치를 이해하고 자녀의 핵심역량과 감정을 찾아봄으로써 양육에 어려움을 해소하고 부모-자녀간 긍정적 유대감 형성의 기회제공</p>	<p>*영, 유아의성장 .양육방법 영, 유아발달이해부모교육(아이강점. 키움 가족놀이) 부모양육태도점검(자녀놀이에 어떻게 참여하시나요?)</p> <p>*영,유아의 인권보호 및 아동학대예방 1.자녀권리존중부모(존경받는아이 함께크는부모)2.아동학대예방부모 아동학대0% 가족행복100%)</p> <p>*보호자역할 가정내 양육환경점검 제4차 어린이집 보육과정 이해하고 존경받는 우리아이 양육환경 포괄적인 양육정보안내</p> <p>*가족의 건강, 영양, 안전 양육스트레스 관리부모교육 스트레스 오인에 따라 4가지 모듈의 워크숍에 참여 1.정체성스트레스 2. 완벽한 부모스트레스 3. 현실육아 스트레스4.관계갈등스트레스</p>

<표 3> 영·유아 온라인교육 현황

보호자 역할	영, 유아의 성장. 양육방법	영, 유아 인권보호 및 아동학대예방	가족의 건강, 영양, 안전
<p>아이와함께 성장하기 영,유아의 양육 환경점검.영,유아 성인지 감수성을 위한 부모교육</p>	<p>영, 유아발달 및 성 행동이해, 양육태도 1.부모로서의1년 2.영,유아부모교육을 위한 긍정양육 3.관련 교육자료 사이트 안내</p>	<p>*자녀권리존중 *아동학대예방 아동 학대예방 교육동영상</p>	<p>*양육스트레스관리 부모교육영상 1.2회 *동영상 시청</p>

[그림 1] 영·유아부모교육 현황



(그림 2) 영·유아부모교육 운영모형 구성요소

5. 시사점

첫째, 가족 구성원 즉 가족구성원에 따른 부모교육 대상을 고려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현대사회는 다양한 가족 구성원과 가족의 형태가 다르다. 따라서 주양육자 또는 양육의 시간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녀 양육과 밀접한 주 양육자를 고려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기본교육과 선택교육으로 운영해야한다. 부모교육을 필요로 하는 대상에 따라 개개인의 차이가 크다. 따라서 양육에 대한 지식 및 필요에 따라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을 나누어 운영하면 더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부모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셋째, 다양한 강사진 활용. 아동관련 전문가, 문제행동 관련 전문가, 아동 성범죄 전

문가 등의 각 분야별로 다양한 강사진을 구성해야 한다.

넷째, 온라인 교육의 다양화. 상황에 따라 부모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는 기관에서는 온라인 교육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단, 쌍방향, 단방향 등의 온라인 교육을 활용할 때는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활용하여야 교육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본 발표자가 세종시 교육청에서 의뢰를 받아 2022~2023년 온라인을 통해 1400여명을 발달검사, 부모양육태도를 실시하고 전화상담을 진행한 결과 발달영역에서는 신체와언어발달은 높게 나타난 반면에 사회·정서발달은 비교적 낮은단계를 보여주었으며, 부모양육태도 검사에서는 대부분 민주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만 다음으로 권위적인 태도를 많이 보이고 있으며, 양육만족도와 지지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왔지만 양육효능감에서는 대체로 낮게 나와 부모들이 양육에 대한 자신감과 본인의 존재감이 다소 떨어지는 것을 알수 있었다. 이러한 온라인 비대면 상담을 통해 부모들에게 어떻게 유아들을 이해하고, 부모들에게 유아들과 함께하는 놀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 긍정적으로 변화 하는데 일조를 하였다고 볼 수있다.

다섯째, 단기의 일회성 교육이 아닌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급연령에 따라 다르게 운영하거나 학기초부터 학기 말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여섯째, 부모교육의 교수방법 개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교육은 단순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 가치관의 형성을 포함 한다. 태도 및 가치관은 강의식의 교수학습방법에서 벗어나 다양한 유형과 형태의 부모교육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부모들이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상담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부모들은 아무리 좋은 교육이 있어도 자녀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 고민을 해소하고 해결할 수 있는 상담관련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

여덟 번째, 부모교육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모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김경희·이재연(1991). 부모권위척도와 준거변인의 관계분석. 한국아동학회, 12(2), 130-145.
- 김병목(2021). 초등학생의 비대면·대면 체육수업 간 인식 비교.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주·손은경·신혜영(2013). 부모교육
- 박새롬·노보람·박혜준·이순형(2017). 부모가 지각한 부부갈등이 온정적 양육태도와 가족유연성을 매개로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 (APIM) 을 적용한 종단 매개효과 분석.
- 손영미(2023). 영·유아 부모교육프로그램 운영모형개발 연구. 대구대학교 디자인·산업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원영(1983), 부모교육 유아교육 심포지움1. 서울:한국 어린이 교육협회(1985), 부모교육론. 서울:교문사
- 정계숙·최은실(2012). 사회인구학적, 심리적, 관계적 요인이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7(5), 143-163.
- Fine, M.A.(1980), Hand book on parent education movement : Anintroduction [n.p] Academic Press.

지정토론

<부모교육>에 대한 토론

김 규 수 명예교수
(원광대학교 유아교육과)

〈부모교육〉에 대한 토론

김 규 수
(원광대학교 명예교수)

■ 들어가며

“문제 아이는 없다.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다.” “자녀를 보면 부모의 얼굴이 보인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 이런 표현들은 자녀는 부모의 생각과 행동을 따라하면서 닮아간다고 보기 때문에 부모됨과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유아교육의 르네상스를 열었다고 평가받는 미국의 헤드스타트 프로젝트의 사후평가에서 조기보상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아교육기관 혼자의 힘만으로는 안되고 부모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와 같은 결론에 따라 부모교육과 부모훈련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여겨져서 이후 대대적으로 부모교육이 실시되었다.

본 토론자는 발제자기 제시한 부모교육의 의미, 부모교육의 필요성, 현대 사회에서 부모교육,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부모교육 전반에 걸친 시사점에 대체로 공감하면서, 발제내용의 보충과 함께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 부모교육의 의미와 필요성 : 왜 부모교육인가?

발제자는 부모교육의 의미에 대해 부모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태도 및 기술과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보고, 이에 근거하여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열거하고 있다. 바람직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

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지식과 기술 및 태도를 배워야 한다. 여기에는 자녀의 발달특성과 욕구를 비롯해서 바람직한 양육태도와 소통, 관계형성에 필요한 기술, 자녀의 성장에 적합한 환경 조건과 자극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본 토론자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고자 한다. 그것은 교육기관과 교사를 존중하려는 태도이다. 사회 변화의 속도에 못 따라가는 부모의 양육 대처방식은 가정에서 시작한 아이들의 문제를 가정에서 해결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그렇다면 학교와 교사가 말로 자녀가 성장하는데 최후의 보루로 여겨야 한다. 자기 자녀가 교사를 존경하고 따르게 하려면 교사의 권위를 지켜주고 자녀가 교사를 신뢰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부모가 교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감수성을 갖게하려면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한 명의 아이를 키우는데 온 동네가 필요하다”라는 말은 부모의 힘만으로 자녀를 키울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부모교육의 필요성은 최근 학부모의 부당한 개입과 갑질이 사회 문제가 된 것과 관련이 있다.

미숙성과 가소성은 갓 태어난 인간의 특성이다.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 월등히 무능하게 태어난 것은 그가 살아갈 시대적 요구와 환경의 필요에 적합하게 배워서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한 조물주의 놀라운 배려가 숨어있다. 백지상태에서 만물의 영장으로 자라는 과정에서 부모의 보살핌과 같은 역할이 필수적이다. 그렇지만 자녀의 성장에 기여하는 부모역할 수행 능력은 부모가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생기거나 세습되지 않는다. 부모의 역할수행 능력은 자기 자녀가 자라는 시대와 환경조건에 맞게 새로 배워야 한다. 조선시대에 태어난 아이를 키우는 것과 현대사회에서 살아갈 아이를 키우는 것과 다르다.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육아에 대한 지식은 세대를 거치면서 누적되어 대물림되는 것이 아니다. 시대가 변했고 아이들도 달라졌다. 양육환경 자체가 이전과 많이 다르다. 그러므로 시대와 상황에 맞는 방식을 부모가 새롭게 터득해야 한다. “나때는 말이야... ”가 통할 리가 없다. 그러므로 부모교육과 훈련을 통해 시대와 내 자녀에 맞는 방식을 배우고 익혀야 할 필요가 있다.

■ 부모교육 프로그램 : 부모교육의 내용과 방법

부모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과 방법을 발제자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제시하고 있다. 발제자는 부모교육의 내용을 기본교육과 선택교육으로 구분하고 가족 구성원의 형태에 맞도록, 즉 주양육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본 토론자는 부모교육의 내용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부모의 역할정체성과 자녀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한다. 부모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녀에게 부모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내 자녀의 발달특성과 욕구는 어떠한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면 좋은 부모노릇을 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자녀양육과 교육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대리양육에 전적으로 의존하려는 태도는 부모역할 정체성의 결여라고 본다. 수고하지 않고 남에게 의존하는 것으로 부모역할을 다한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페스탈로찌가 권고한 바와 같이, 부모라는 천직을 내려놓아서 안된다.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일을 남이 대신하게 할 수는 없다.

칼릴 지브란은 “아이들에 대하여”라는 은유적인 시에서 부모와 자녀를 활과 화살에 비유하면서, 화살을 멀리 날아가게 하려면 활이 많이 구부러져야 하듯이 부모의 수고가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발제자가 강조하듯이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온라인을 활용한 개별교육을 권장할 수 있다. 또한 일방적인 전달방식이 아닌, 온 오프 워크숍 등 참여가 가능한 형태로 운영한다면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언

발제자는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다양한 제언을 밝히고 있다. 본 토론자 역시 몇 가지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부모교육을 부모의

자율적 선택에 맡기면 생업과 생활에 바쁜 부모들의 사정을 고려할 때 소극적이며 매우 제한적인 참여가 불가피하다. 실제로 유아교육 현장에서도 부모교육이 정말 필요한 부모들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출생신고, 양육비 수령 등 행정절차에서 부모교육 이수를 필수조건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 불편을 핑계로 불만의 소지가 있지만 제도적으로 정책된다면 부모교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우려하여 출산율 제고를 위해 국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접근은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여러 가지로 미숙한 초보 부모가 첫째를 낳아 길러보니 여간 힘들게 아님을 알게 되어 둘째를 기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부모교육과 함께 양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확대된다면 자신감을 갖게 되어 다자녀를 두는 가정이 늘어날 것이다. 자녀를 잘키우게 하면서 출산율도 높일 수 있게 하려면 양육지원정책에서 다소 강제성을 띤 부모교육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자녀를 키우면서 생기는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있는 전문상담활동의 지원이 필요하다. 물론 사설상담기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경우에 가거나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이용이 쉽지 않다. 아울러 1회성 상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만큼 지속적인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국가기관으로 부모훈련센터를 설립하여 부모교육과 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센터와 건강보건센터도 물론 중요하다. 그렇지만 미래세대를 준비시키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면 국가가 부모훈련센터를 설립 운영하여 부모교육 요람을 만들어간다면 부모의 양육효능감 뿐만 아니라 출산율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아버지 육아교실을 확대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육아휴직제 등 아버지 양육참여를 권장하고 있지만 훈련받지 못한 채 양육에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아버지-자녀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오죽하면 자녀교육 성공요인으로 할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정보력과 함께 아빠의 양육 무관심을 꼽겠는가.

■ 나가며

자녀를 어떤 존재로 보아야 하며,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은유적으로 잘 표현한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에 나오는 시 한편을 소개하는 것으로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아이들에 대하여

칼릴 지브란

그대의 아이는 그대의 아이가 아니다.
아이들이란 스스로를 그리워하는
큰 생명의 아들딸이니
그들은 그대를 거쳐서 왔을 뿐 그대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또 그들이 그대와 함께 있을지라도
그대의 소유가 아닌 것을.

그대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으나, 그대의 생각까지 주려고 하지는 말라.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의 생각이 있으므로.
그대는 아이들에게 육신의 집은 줄 수 있으나, 영혼의 집까지 주려고 하지 말라.
아이들의 영혼은 내일의 집에 살고 있으므로.
그대는 결코 찾아갈 수 없는, 꿈속에서조차 갈 수 없는 내일의 집에.
그대가 아이들과 같이 되려고 애쓰는 것은 좋으나,
아이들을 그대와 같이 만들려고 애쓰지는 말라.
큰 생명은 뒤로 물러나지 않으며, 결코 어제에 머무는 법이 없으므로.

그대는 활, 그리고 그대의 아이들은 마치 살아있는 화살처럼
그대로부터 쏘아져 앞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활 쏘는 자인 신은 무한의 길위에 과녁을 겨누고, 자신의 화살이 보다 빨리,
보다 멀리 날아가도록
온 힘을 다해 그대를 당겨 구부리는 것이다.
그대는 활 쏘는 이의 손에 구부러짐을 기뻐하라.
그는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는 만큼,
흔들리지 않는 활 또한 사랑하기에.

지정토론

영유아교육기관의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이 미 정 팀장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 유보통합추진TF팀)

영유아교육기관의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이미정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 유보통합추진TF팀)

1. 시작하는 말

아이를 키운다는 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의미있고 기쁜일이며 축복이고 행복이라고 한다. 행복은 마음과 가정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육아를 부모들은 왜 힘들고 어렵다고 느끼는 것일까? 양육의 최종 목적은 미성숙한 아이를 제대로 된 어른으로 성장시켜 독립시키는 것이다. 영유아기는 분별력을 키우는 법, 행동에 책임을 지는 법,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법, 바르게 소비하고 저축하는 법,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법 그리고 삶을 질서정연하게 만드는 기본 습관과 태도를 길러주어야 한다. 부모가 자녀를 올바르게 기르기 위해 부모 교육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영유아교육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부부 중심의 가족형태는 부모에게 그 역할과 책임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게 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멘토가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영유아교육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셰익스피어는 ‘강력한 이유는 강력한 행동을 낳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우리는 자녀를 올바르게 키워야 할 강력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모교육을 해야 하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것이다.

2. 부모에게도 배움이 필요하다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도 배우고 성장한다. 각종 정보가 범람하는 요즘 양육에 열정적인 부모들은 이곳저곳을 방문하며 육아와 학습정보를 모은다. 그러나 내 아이에게 딱히 맞는 방법을 찾기 어렵고, 좋은 정보이지만 내 아이에게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보니 이것저것 해 보며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그 과정에서 좌절과 실패를 경험할 경우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한다. 가정구조의 변화로 부모역할에 대한 멘토가 부재인 상황도 부모를 힘들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또한 부모는 자신의 육체와 정신 관리를 잘 해야 한다. 건강한 몸에서 밝은 에너지가 나오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힘이 생성되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부모와 예전의 부모의 역할

이 상당 부분 달라졌고, 각 가정마다 자녀가 한둘이다 보니 요즘 부모들은 아이를 섬기며 키우고 있는 현실이다. 20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인류학자 마거릿 미드는 현대 사회에서 자녀 양육이 어려운 이유는 “부모가 정확한 목표를 알지 못하는 데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결국 부모들 대부분이 자신의 걸어온 안정적이고 검증된 길로 자녀를 이끌어 가려고 한다는 것이다.

다섯 살 미만의 아이는 생각과 공상, 상상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해 거짓말이 아닌 거짓말을 한다. 환상과 현실에 대한 경계가 모호한 시기이므로 아이의 거짓말에 민감한 반응을 하기보다 이해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3. 영유아교육기관의 역할

이처럼 중요한 부모의 역할을 부모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하기에는 부모 과업이 결코 만만치 않다. 이에 영유아교육기관에서 발벗고 나서서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부모교육은 중요하다. 그렇다면 기관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해 보자.

첫째, 올바른 정보와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각종 매체와 인터넷의 발달이 가져온 세계 곳곳의 정보량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정보 속에서 옥석을 가려내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 이 말을 들으면 그 말이 옳은 듯 하고 또 저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육아철학이 정립되지 않은 부모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에 놓여있다. 따라서 영유아교육기관에서 육아정보에 대한 정확한 사실과 이해를 도와야 한다. 온라인이나 지면 또는 상담과 연수를 통해 학부모가 옳고 바른 정보를 취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일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영유아의 특성과 부모의 요구를 반영한다면 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부모교육이 되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해서 직장업무로 바쁘고 시간이 부족한 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 일회성이나 단기적인 접근이 아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부모의 멘토 역할을 해야 한다. 예전에는 조부모나 방계의 가족이 함께 기거하면서 공동육아를 했으므로 경험에 의한 육아를 접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공동육아가 사라지면서 ‘독박육아’라는 말이 생겼다.

즐겁고 행복해야 할 육아가 힘든 노동으로 다가오는 상황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다. 부모가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육아환경에서 바른 판단과 결정을 해야 할 때에 올바른 방향을 안내해 주고 조언을 해 줄 멘토가 필요하다. 경험부족으로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에게는 반드시 육아멘토가 필요하다. 이 역할을 영유아교육기관에서 해 준다면 부모는 육아를 혼자하는 것이 아닌 사회가 함께함을 느끼고 정서적 지원을 받는 마음으로 자녀 양육에 더 집중하며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접한 경험은 자녀의 성장에 따라 달라지는 부모의 역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만 부모의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고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할 것이다.

한편 부모교육 전문가 임영주교수는 이중 구속메시지(double bind)에 대해 말한다. 이중구속메시지란 두 개의 올가미를 걸어 이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드는 상황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자녀와 그림을 그리면서 “네 맘대로 그려봐” 해놓고 막상 자녀가 그림을 그리면 “이건 왜 이렇게 그렸니? 저렇게 해야 하지 않겠니?” 하며 간섭을 한다. 이런 부모의 행동은 자녀를 혼란에 빠뜨리게 할 수 있다. 켄 블랜차드의 《춤추는 고래의 실천》에서 ‘알보시고의 원칙’을 말한다. 교정을 위해 알려주고, 보여주고, 시켜보고, 고쳐주는 것이다. 이렇듯 부모의 바른 역할을 위해 멘토가 필요하고 이 역할을 영유아교육기관에서 해 주면 좋다. 이렇듯 멘토가 되어 주는 기관이 부모에게 절실하다.

셋째, 부모교육이력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부모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효율성과 참여율 또한 높일 수 있다. 이력을 관리하여 이수 내용에 대한 중복을 피하고 각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기관에서는 이력 데이터를 분석하여 향후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선택의 근거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기준점에 도달한 학부모에게는 혜택을 주거나 적절한 보상을 하여 동기를 강화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겠다.

넷째, 부모의 마음근력을 키워주면 좋겠다. 초보 부모는 작은 일에도 민감하고 옆집이나 동네 아이와 비교하며 조급해하거나 불필요한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한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 사회적으로 독립하려면 장기적인 시선으로 접

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녀를 양육하고 성장을 돕는 과정에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아프고 또 불안하기도 할 것이다. 이에 실패와 좌절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힘-그것을 연세대 김주환 교수는 회복탄력성이라 한다.-을 길러주는 것이 행복한 자녀로 키우는 핵심이다. 회복탄력성을 심리학에서는 주로 시련이나 고난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을 의미하는 말로 쓰인다. 부모가 중심을 잡고 마음을 평안히 하는 것은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마음 근력을 키우기 위해 공감의 필요하다고 한다. 공감은 상대의 감정을 잘 읽어내는 것이다. 상대의 마음을 읽어낸다는 것은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경청하는 법부터 가르쳐야 한다. 경청은 상대방의 말을 집중해서 듣고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행동이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면 새로운 생각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기만 해도 창의력이 저절로 높아진다고 한다. 마음근력의 시작은 자기존중이다. 자기존중이 되어야 타인 존중이 되고 자기 긍정이 되어야 타인 긍정이 된다. 지치지 않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자녀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추진 동력을 주어야 한다.

4. 기타

첫째, 초중고대학의 교육과정에 부모교육을 포함하는 것을 제안한다. 부모가 되는 것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준비된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는 그 역할과 책임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에 초중고대학교에서 부모교육에 대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교육과정에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다. 청소년기부터 올바른 부모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배우고 준비하는 과정을 갖는다면 성인이 되어 부모가 되었을 때 몰라서 어렵거나 육아의 힘듦을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리라 생각한다.

둘째, 조부모 등 제2양육자에 대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손자 돌봄에 참여하는 조부모 또는 기타 양육자를 고려한 교육이 필요하다. 최근에 손자 돌봄에 참여하는 조부모가 증가함에 따라 시대에 따라 변화한 육아와 문화 등에 적응이 필요한 조부모를 위한 별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비혈연의 양육자 또는 보호자에 대한 교육 또한 필요하다. 부모에 준해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정보제공과 교육으로 궁극적으로 영유아의 바른 성

장을 도모할 수 있음이다.

셋째, 집밥을 먹는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이 그 사람이 된다는 말이 있다. 먹는 것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단적인 예다. 아이가 똑똑하고 건강하길 바란다면 건강한 집밥을 먹어야 한다. 건강한 식사는 아이의 장기적인 학습과 건강한 신체발달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음식이 아이의 두뇌를 결정한다’는 S 방송사 보도가 있다.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에너지가 나오고 잘 놀고 배우고 그에 따라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가질 수 있다. 좋은 음식은 성장기 아이들의 두뇌 발달을 촉진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것은 결국 자녀 교육을 잘 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모두 다 알지만 실천하기 쉽지 않다. 바쁘지만 건강한 식사를 가정에서 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권장하는 사회 분위기가 되어 부모들이 함께하길 바란다.

5. 맺는 말

어느 부모교육 전문가는 이렇게 말한다. ‘만약 당신이 자녀라면 당신을 부모로 선택하겠는가?’ 라고 물음을 던진다.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배우고 성장해서 행복한 자아로 서는 것은 인생의 중요하고 큰 목표이다.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은 설령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부모의 책임과 의무를 무겁게 여기기기 보다는 자녀와 함께하는 모든 일이 기적이고 축복이라는 생각을 하면 어떨까? 아울러 자녀가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부모와의 건강한 관계는 건강한 사회의 기반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영유아교육기관이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에 머문다.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와 아이들이 푸른 미래를 가슴에 품고 보람있고 행복한 현재를 살아가길 바란다.

지정토론

영유아기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소고

이혜경 팀장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혁신과 행복교육팀)

영유아기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소고

이 혜 경
(충청남도교육청
행복교육팀 장학관)

1. 공감하며

“부모 노릇을 한다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다” (동아일보, 2021. 7. 21., A31면),
‘타이거 마더’의 저자, 한국에 ‘타이거 맘(tiger mom)’으로 잘 알려진
Amy Chua 미국 예일대 법대 교수의 인터뷰 글 중에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경제 전 분야의 급속한 변화와 예기치 않았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육현장은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가정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부모들의 양육 스트레스도 함께 높아졌고 이로 인해 가족 간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많았다. 지금도 꾸준히 회복 과정 중에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나 자녀양육에 대한 교육기관의 어려움은 더욱 더 가중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런 시기에 영유아기관의 부모교육 활성화에 대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한다. 특히 저에게는 부모교육에 대해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에 감사드린다.

부모는 최초의 담임이자 평생 담임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기도 어렵지만, 최초의 담임이자 평생 담임인 부모의 질을 넘기는 더 어렵다. 부모가 생애의 전 기간에 걸쳐 더 오래 더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영유아기는 결정적시기(critical period)라고도 하며 부모의 양육관, 양육태도, 양육 방식에 따라 자녀의 성격, 태도,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 전통사회에서도 부모교육은 중요하게 여겨졌으며 전통사회의 대가족 하에서는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이 자녀를 함께 양육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핵가족화 구조에서는 다른 가족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워졌고 부모세대와의 단절로 관찰학습과 양육노하우를 전수받기도

어렵게 되었다. 반면에 부모의 역할과 역량에 대한 기대와 요구 수준은 높아져 자녀 양육은 올곧이 부모의 몫이 되었다. 전통사회보다 부모의 역할이 더 많아졌고 더 중요해졌다고 하겠다. 과도한 정보와 매스미디어의 왜곡으로 부모 역할에 대한 혼란은 가중되고 자녀 양육에 사회적 간섭과 비난의 증가 등으로 요즘은 부모가 되기도 힘들고, 좋은 부모가 되기는 더욱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

부모(보호자)는 아이들의 생애 초기부터 성장기까지 가장 중요한 시기를 책임지는 교육의 주체이다, 부모가 육아 시작 전부터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언제든지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아이들도 잘 성장할 수 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라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그 교육적 중요성을 생각하면 부모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2. 조심스럽게, 하나씩!

오늘 ‘부모교육’ 주제 발표에 대한 의견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한다.

첫째, 부모가 되는 과정에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고딩엄빠’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다. 준비도 없이 부모가 됨에 따라 발생하는 부모 역할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감당하게 할 것인가? 준비되지 않은 육아는 부모 등 보호자와 아이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기 쉽다. 이에 **예비부모교육 실시를 제안**한다.

예비부모교육이란 10대 미혼 부모, 고등학생, 대학생, 미혼의 청년, 자녀 출산 이전의 부부 등을 대상으로 이들에게 부모됨에 대하여 생각해볼 기회를 주어 자신감을 갖고 양육에 임하게 하며, 자녀를 즐겁고 행복하게 기를 뿐 아니라 자녀의 잠재능력이 최대로 계발될 수 있도록 부모에게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가르치며, 자녀양육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다(김정미, 2004). 그러므로 이러한 예비부모교육이 개인의 바른 성장뿐 아니라 장차 사회 전체의 안정을 위해서도 모든 사람에게 충분히 주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혼인 외 출산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변화를 볼 때 예비부모교

육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 부모의 생활습관, 가치관이 아이들의 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일관성 있는 양육 태도가 필요하다**. 가정과 교육기관(유치원, 학교 등)에서의 자녀의 생활 태도가 다를 수 있다. 가정과 교육기관의 소통,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 형성으로 자녀교육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마라.

평균의 종말 (저자) 토드 로즈는 학창 시절 자기 자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주위 사람들은 열이면 아홉은 내가 문제라고 했다. 나를 게으르고 한심한 아이로 취급했고, 내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문제아’라는 핀잔이었다.” 지금도 학교에는 토드 로즈와 같은 ‘문제아’들이 넘쳐난다. 단지 ‘평범(average)’하지 않다는 이유로 구제불능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다. 모든 아이가 연령대별로 동일한 교육을 받고, 개인성을 소중히 여기기보다 집단에 적응하는 것을 더 중요히 여기는 세상에서는 교사도, 학부모도, 학생도 ‘평균’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일까. 아이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평균적 발달’에 맞춰 성장하는지, 그에 못 미치는지 비교하며 초조해한다. 몸을 뒤집고, 기고, 일어서서 걷는 발달 단계가 모두 ‘평균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다. 연령별로 ‘평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학습 난이도가 정해져 있기에, 수업을 이해하지 못하면 쉽게 ‘학습 지체’라는 꼬리표가 금방 달라붙는다. 아이 스스로도 성적표를 받고 자괴감이 빠지거나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은 물론이다. -(「평균의 종말」 출판사 서평 중에서)-

셋째, 시대의 변화에 따른 **부모의 역량 함양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부모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자녀양육과 지도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 부모역할 수행능력을 향상하고 가치관 변화를 통해 부모와 자녀의 원만한 관계 유지와 문제를 예방함으로써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 증진에 있다. 출산 전인 예비부모교육은 병원과 보건소에서 정기검진을 받으면서 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건강가족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일회성이 아닌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최근 아동학대 등 부모(보호자) 관련 사회적 문제의 발생 증가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진입에 따라 자녀에 대한 올바른 이해, 부모의 역할 등을 포함한 전(全)생애주기별 특성에 부합하는 부모교육 체계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75.6%가 부모, 16.6%가 대리양육자이다. 학대가 아니더라도 육아 중 자녀와의 관계나 교육 문제 등으로 고충을 호소하는 부모들이 증가하고 있

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사회와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 학교 등에서 다양한 부모교육 기회를 마련하고 있으나 부모교육을 위한 표준 매뉴얼이나 교육자료 등 콘텐츠가 부족하고 각 부모교육 시행 기관별로 교육프로그램의 내용과 질이 상이하여 부모교육 현장에서 표준화된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 사항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충남교육청에서는 공주교육대학교에 ‘생애주기별 부모(보호자)교육과정 개발 연구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넷째, 영유아기 **부모교육 의무교육화¹⁾**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부모교육이 필요함에는 모두가 동의하나 의무화에는 다소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의무화를 추진한다면 의무이수시간을 최소화하고, 의무 이수 시기는 예비부모 시기가 적절하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또한 의무화 실시에는 강사를 표준화하지 않으면 교육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맞벌이 가정, 직장인 부모를 부모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예: 공무원의 경우, 가족돌봄휴가 사유(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에 부모교육도 추가 검토를 제안함>

다섯째, **가족 형태의 특성에 따른 부모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 맞벌이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재혼가정 등 영유아가 처한 여러 가지 유형의 가족 상황에 따라 자녀 양육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다를 것이다. 따라서 각 가정의 실태를 반영한 맞춤형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제한점이 있어 어려운 실정이므로 교육기관별로 현실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부모교육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대면교육과 온라인교육을 병행하여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일회성 또는 다회성 교육 등 교육 기간을 다양화하고, 다양한 시간대(평일 오전, 평일 저녁, 주말 등)에 실시하며 자녀를 돌봐주는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물론 전문 교수요원을 육성하고 확보해야 하며, 사회교육 차원에서 교육방송 등 방송매체, 지역사회에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면 더욱 효과가 높을 것이다.

1) 이윤진·이정림·임준범(2017). 영유아기 부모교육 참여 실태 및 내실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3. 우리 모두의 아이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말처럼 영유아기는 질 높은 교육과 보호가 필요한 시기이다.

처음부터 부모로 태어난 사람은 없다. 하지만 누구라도 부모나 보호자가 될 수 있다. 급속한 변화와 치열한 경쟁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사회의 부모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부모로서 자녀를 적절하게 양육하는 역량의 개념에서 벗어나 한 개인으로서 높은 심리적 안녕감을 추구하고 유지하며 사회인으로서 잘 적응하며 살아가는 능력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부모(보호자)가 능동적인 교육 주체로서 책임감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부모교육과 지원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하다.’

“자녀의 말을 경청하라”

“높은 기준을 갖게 해주되,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하라”

“어느 정도 자유를 보장해주고, 아이가 선택할 때는 도움을 주라”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집착해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말라”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는 것이다”

- Amy Chua 교수가 부모들에게 들려주는 Tips-

